

영동지역어내의 충청방언 남동부 하한선 연구*

성희제

(한밭대학교)

1. 머리말

충북 최남단에 위치한 영동(永同)은 경상·전라 방언과 인접해 있어서 방언 접촉 지역의 하나로서 학계에 주목을 받아온 곳이다.¹⁾ 영동 지역어는 남서부에 인접한 전북 무주지역어와 달리 남동부의 경북 김천지역어와의 편차가 큰 편인데, 이 지역어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충청방언과 경상방언의 경계선이 행정구역과 다르게 이 지역 안에서 발견되며, 이 지역어가 충청방언권과 경상방언권으로 갈리면서도 양 방언권 안에는 충청 혹은 경상 방언의 특성이 병존하거나 융합해 있다는 점이다.²⁾ 즉 영동 충청방언권의 음운에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1) 영동 충청방언권에는 영동읍·용산면·양강면·용화면·심천면·양산면·학산면 등 서부의 7개 지역이 있으며, 영동 경상방언권에는 황간면·상촌면·매곡면·추풍령면 등 동부의 4개 지역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구역에 따른 분류이고 좀더 자세한 방언구획은 4장에서 논의될 것이다.(영동지역의 지도는 4장을 참조)

영동지역어는 도수희(1977:96)의 분류에 따르면 ‘서천·보령·부여·청양·공주·논산·연기·대전·금산·옥천’ 등과 더불어 A지역어에 속해 있는데, 이 A에 속하는 영동지역어라 함은 경상방언권을 제외한 충청방언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본고에서 사용한 ‘병존’과 ‘융합’이란 용어는 방언학의 ‘병존방언’(mixed lects)과 ‘융합방언’(fudged lects)이란 개념에서 취하였다. 영국의 동부 앵글리아(East Anglia) 지방에는 후설원순이완고모음 [i]를 가진 지역과 중설비원순모음 [ɜ]를 가진 지역이 있는데 이들 양극의 중간지역에는 이 두 모음이 다 존재하는 병존방언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앵글리아의 또 다른 지역에는 어느 쪽에도 없거나 양쪽에 동시에 존재하는 발음을 가진 융합방언이 있다고 한다.(이상규 2003:242~243)

본고에서 ‘병존’이라 함은 충청방언과 경상방언의 음운 체계나 과정이 함께 공존

는 경상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매우 독특한 융합적 성격들이 발견되며, 영동 경상방언권의 음운에는 충청방언적인 요소가 부분적으로 병존해 있다.³⁾

방언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방언경계는 방언특징의 단순한 대응관계를 통해서만 찾아서는 안 되며, 어떤 구조적인 근원으로부터 얻어진 방언체계 내의 유형화와 때로는 자료 자체로부터의 적절한 기술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설정의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이병근1969나.4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휘 자료나 몇 가지 음운현상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한 방언 간의 경계 설정을 지양하는 대신에, 각 방언 지역어들의 음운체계와 음운과정에 나타난 공통성과 상이성을 찾아내고 그 전체의 구조적인 관계와 성격을 밝혀서 충청방언의 남동부 하한선을 설정해보고자 한다.⁴⁾

해 있음을 말하고, ‘융합’은 두 방언이 섞임으로 인해 양 방언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음운 체계나 과정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문 각 장에서 그 내용을 밝히겠지만 영동 충청방언권은 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영동 경상방언권은 병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 3) 영동 충청방언권과 경북 김천지역어 사이에 위치한 영동 경상방언권은 충청방언과 경상방언의 전이지역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영동 경상방언권과 김천지역어 간의 친소관계를 아직 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동 경상방언권 해당 지역 중 어디까지를 전이지역어로 보고 어디까지를 경상방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문제는 필자가 앞으로 진행할 연구에서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충청방언의 남동부 하한이 어디인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므로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영동 충청방언권 외의 경상도 쪽 지역을 전이지역어라 하지 않고 경상방언권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 4) 영동의 남서부에는 전북 무주군이 인접해 있는데, 무풍면을 제외한 지역들의 음운적 특성이 북부의 충청방언들(금산과 영동)과 여러모로 유사한 점이 많다. 이익섭(1970:74)과 전광현(1983:19)은 두 방언 간에는 구획을 설정할 만큼의 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피력한 바 있고, 이혁화(2005)도 영동과 무주 지역어 간에는 친근성이 큼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익섭(1970:80)은 무풍(경상방언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제외한 무주지역어는 남부에 인접한 진안(등어선속의 굽기 51°)보다 충청지역인 금산(25°)과 영동(40°)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충청방언의 남부 하한선이 영동이나 금산이 아닌 전북 무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무주가 충청방언권으로 귀속된다면 본고의 ‘남동부’란 용어도 ‘동부’라 함이 옳겠으나 아직 무주와 그 밖의 충청·전라지역어간의 대비 연구가 전체적으로 충분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고의 연구 방법과 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영동 내 충청방언권(이하 1.지역어)과 경상방언권(이하 2.지역어), 그리고 남부에 인접한 김천지역어(이하 3.지역어), 영동 서부와 북부에 인접한 충청지역어(금산·옥천, 이하 4.지역어) 등 이들 네 개 지역어의 음운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음운체계를 대비해서 그 공통점과 상위점을 찾아보았다.(2장) 그런 연후에 각 지역어의 음운과정 상에 나타난 공통점과 상위점은 무엇이 있으며, 충청·경상 두 방언간의 접촉으로 인해 야기된 독특한 음운적 성격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폈다.(3장) 그리하여 각 지역어들의 모든 음운체계와 음운과정들을 하나의 표로 모아 상호간의 관계를 간명하게 살펴보고 영동 충청방언권(일부 지역 제외)이 충청방언의 남동부 하한선이 되는 근거를 밝히고 이를 지도로써 표시하였다.(4장)⁵⁾

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본고에서는 ‘남동부’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 5) 본고의 영동 지역어 자료는 영동 토박이 화자(충청방언권)인 필자가 조사한 자료(1997~8, 2005)를 바탕으로 하여 최갑순(1977), 정신문화연구원(1987), 정원수(1991), 정영철(1997)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필자가 조사한 이 지역어의 제보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 1998년 조사>

성백찬(65):학산 봉림리 708 장평호(58):양산 봉곡리 김옥순(61):황간 마산리 339-1
최오순(70):황간 마산리 109 김대승(60):추풍령 사부리 736 김영수(68):추풍령 사부리 492

<2005년 조사>

박진해(70):영동 봉현리110 김동근·박선하(75):영동 심원리(예전리) 716-12
손만규(83)·손광단(70):용산 산저리 정문영(60)·정구봉(73):용산 매금리
황인문(66):용산 덕진리 218 황복치(64):용산 용산리 64
박성현(76):조남수(53):영동 상가리 김영환(69):영동 하가리 790

그리고 김천 지역어 자료는 <경상북도 방언 자료집>(경상북도 1994)과 백두현(1982), 이혁화(2005)를 참고하였으며, 인접 충청지역어로서 옥천지역어는 조성귀(1983), 금산지역어는 한영목(2000)과 정신문화연구원(1987)을 참고하였다.

2. 음운체계

2.1 자음과 모음

네 개 지역어는 모두 아래와 같이 19자음 체계를 가지고 있다.(1.영동 충청방언권, 2.영동 경상방언권, 3.김천지역어, 4.인접 충청지역어)

(1) 자음체계

1.2.3.4. /	ㅂ	ㄷ	ㅅ	ㅈ	ㅊ	
	ㅃ	ㅌ		ㅉ	ㅊ	ㅎ
	ㅍ	ㅍ	ㅆ	ㅈ	ㅊ	
	ㅁ	ㄴ			ㅇ	
		ㄹ				/

김천지역어에는 /ㅅ:/ㅆ/(살膚:쌀米, 서立:씨味)의 대립이 있고 영동 경상방언권에도 두 음이 변별적으로 기능한다. 네 개 지역어의 이러한 동일한 자음체계는 자음 간 변이과정의 많은 부분에서도 공통성을 띠게 하는 바탕이 된다 (3.1장 참조).

그러나 모음체계는 자음체계와 달리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2) 모음체계

1.4.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이</td><td>위</td><td>으</td><td>우</td></tr> <tr><td>에</td><td>외</td><td>어</td><td>오</td></tr> <tr><td>애</td><td></td><td>아</td><td></td></tr> </table>	이	위	으	우	에	외	어	오	애		아		2.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이</td><td></td><td>으</td><td>우</td></tr> <tr><td>에</td><td></td><td>어</td><td>오</td></tr> <tr><td>애</td><td></td><td>아</td><td></td></tr> </table>	이		으	우	에		어	오	애		아		3.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d>이</td><td></td><td>우</td></tr> <tr><td>에</td><td>꺄</td><td>오</td></tr> <tr><td></td><td>아</td><td></td></tr> </table>	이		우	에	꺄	오		아	
이	위	으	우																																			
에	외	어	오																																			
애		아																																				
이		으	우																																			
에		어	오																																			
애		아																																				
이		우																																				
에	꺄	오																																				
	아																																					

(2)에서 보면 영동 충청방언권과 인접 충청지역어들은 10모음이 변별되고 있는데, 영동 경상방언권과 김천지역어는 각각 8모음, 6모음으로 달리 나타나고 있다. 2.지역어의 경우 1.4.지역어에 나타나는 /위/ 모음은 /이/로(신대(쥬다), 기엽다(귀엽다)), /외/ 모음은 /에/(쥬다(쥬다), 꺄(꺄)) 또는 /이/(디다(되

다))로 발음되고 있다. 3.지역어의 전부 모음에 /에/가 없는데 이는 통시적으로 이 지역어의 /에/모음이 /이/로 변화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애/만 남게 된 것으로 보이며(최명옥 1982:36, 백두현 1982:9), /으/와 /어/의 경우는 중화되어 /원/(원:機:毛)로 남게 된 것이다.

2.지역어의 모음체계에 /에/와 /애/(벤다.밴다), /으/와 /어/(들:덜)가 변별됨은 2.지역어가 김천지역어와 같은 성조방언임에도 충청방언의 특성이 병존해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이들 모음 간의 대립이 가능함에 따라 김천지역어에는 없는 ‘어→애’, ‘으→이’와 같은 올라우트과정이 상존해 있다.(3.2장 참조)

영동 충청방언권을 YC(4.지역어도 동일), 영동 경상방언권을 YG, 김천지역어를 G로 하여 이 지역어간의 모음관계를 구조방언학의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 \quad \begin{array}{l} \text{YG:YG:} \\ \text{G} \end{array} \left(\begin{array}{c} \text{YG, G /이/} \\ \text{YC /이~} \\ \text{위/} \end{array} \right) \approx \left(\begin{array}{c} \text{G /애/} \\ \text{YG /에~애/} \\ \text{YC /외~에~} \\ \text{애/} \end{array} \right) \approx \left(\begin{array}{c} \text{G /원/} \\ \text{YG, YC /으~} \\ \text{어/} \end{array} \right) \approx \begin{array}{l} \text{우~오} \\ \text{아} \end{array}$$

2.2 이중모음

네 개 지역어에는 활음으로 y와 w가 있으며, 이들 활음과 단모음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중모음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이중모음체계

1.2.4. y계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 10px;">의</td> <td style="padding: 2px 10px;">유</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예</td> <td style="padding: 2px 10px;">요</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애</td> <td style="padding: 2px 10px;">야</td> </tr> </table>	의	유	예	요	애	야
의	유						
예	요						
애	야						

w계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2px 10px;">위</td> <td style="padding: 2px 10px;"></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워</td> <td style="padding: 2px 10px;">워</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왜</td> <td style="padding: 2px 10px;">와</td> </tr> </table>	위		워	워	왜	와
위							
워	워						
왜	와						

3.	y계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0 auto;"> <tr> <td style="padding: 2px 10px;">여</td> <td style="padding: 2px 10px;">유</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yɨ)</td> <td style="padding: 2px 10px;">요</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애</td> <td style="padding: 2px 10px;">야</td> </tr> </table>	여	유	(yɨ)	요	애	야	w계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0 auto;"> <tr> <td style="padding: 2px 10px;">위</td> <td style="padding: 2px 10px;">위</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wɨ)</td> <td style="padding: 2px 10px;">(wɨ)</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왜</td> <td style="padding: 2px 10px;">와</td> </tr> </table>	위	위	(wɨ)	(wɨ)	왜	와
여	유															
(yɨ)	요															
애	야															
위	위															
(wɨ)	(wɨ)															
왜	와															

2.지역어는 단모음에 있어서 1.4.지역어의 /위/, /외/가 없지만 이 두 모음은
 활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생성하지 않으므로, 2.지역어의 이중모음체계는
 1.4.지역어의 이중모음체계와 동일하다. 1.2.4.지역어의 중모음에 인(yi)가 존
 재하는데, /yinjɔŋ/(永同), /yitʰi/(여치), /yinjɔm/(영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천지역어의 경우 어휘 내 어느 위치에서든 자음 뒤에는 이중모음이 올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르는데(백두현 1982:11), 영동 경상방언권의 경우에는 어
 두에서만 이런 현상이 있다. (어두: 행교(향교), 기경(구경>귀경), 베실(벼
 슬)… 어중: 미치괘이(미치괘이), 살괘이(살괘이), 송편(송편)… 2.지역어의
 이중모음체계는 충청지역어적인 성격을 가졌으나 이중모음의 실현에 있어서
 는 김천지역어적인 요소가 병존해 있다 할 것이다.

2.3 운율

1.4.지역어와 2.3.지역어의 대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인식되는 게
 바로 운율이다. 즉 1.4.지역어는 음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는 음조방언
 이지만 2.3.지역어는 음의 높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되는 성조방언이다. 1.4.지
 역어의 의미 변별은 어두에서만 변별적이지만, 2.3.지역어의 경우에는 위치에
 상관없이 변별적이다.

(5) 가. 1.4. 음조방언

말(馬)-말:(言) 눈(目)-눈:(雪) 밤(夜)-밤:(粟) 일(-)-일:(事)
 (땅이)질다-(길이)가질:다 (잠을)깨다-(그릇을)깨:다

나. 2.3. 성조 방언

눈(目)M - 눈(雪)L 밤(夜)M - 밤(粟)L 밭(足)M - 밭(廉)L

말(馬)H - 말(斗)M - 말(言)L
 말(馬)H 말 + 이 마리 HL
 말(斗)M 말 + 이 마리 LL
 말(言)L 말 + 이 마리 LL

특이한 것은 1. 지역어의 일부 어휘와 형태소에 나타나는 운율인데, 2.3. 지역어의 높이처럼 의미변별력이 없어서 성조라고는 할 수 없지만 1. 지역어에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 예를 다른 지역어들과 대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⁶⁾

(6) 가. 어휘

(어머니) 1.2.어머이 LHH 3.어무이LHH 4.어머니~엄마~엄니LL(L)
 (아주머니) 1.아주머이LLHH 2.3.아주매HML 4.아주머니~아줌마~아줌니LLL(L)
 (많이) 1.마이LH 2.3.마이HL 4.마니LL
 (아니다) 1.아이다LLH 2.아이라LLH 3.아이라LHL 4.아니다LLL
 ((내가) 말이야) 1.마려LH(MH) 2.3.마리라HML 4.마려LL
 (해!) 1.하H 2.3.해여HL 4.하L
 ((왜)그래) 1.(왜)그라(L)LH 2.3.(와)그래여(L)MHL 4.(왜)그라LL

나. 형태소⁷⁾

(아니더라고) 1.아이더라고LLLLH(MH) 2.3.아이더라고LLHHL 4.아니더라고LLLLL
 (했는가봐) 1.헨능계벼LLLLH(MH) 2.3.헨능계비라MLHHL 4.헨능계벼LLLL
 (뭐 하나?) 1.뭐하나LLH 2.3.머해여LHL~머하나LHL 4.뭐하나, 뭐허나

6) 이 운율은 영동 충청방언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 영동(충청방언권) 출신임을 인식하기도 한다.
 보기 (6) 1.지역어에서 밀출친 H(MH)는 H로 끝나거나 HMH로 수의적으로 교체됨을 표시한 것이다.
 7) 아래 의문형의 경우는 끝을 올리는 게 국어에 일반적이거나 의문형 어미가 있기 때문에 끝을 올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영동 충청방언권의 경우는 끝 음절을 고조로 발음하지 않으면 매우 부자연스럽다.

LLL~LLH

((어디)가요?) 1.(어데)가요(LL)LH 2.3.(어데)가요(LM)HL 4.(위디)가유

LL~LH

(6.가) 예 중에는 특히 ‘이’ 모음 앞에서 ‘ㄴ’이 탈락한 어휘들이 많으며, ‘ㄴ’이 탈락한 음절은 주로 H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영동 충청방언권에 특히 하게 존재하는 이 운율은 인접 경상방언이나 충청방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인접 경상방언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의 흔적이 일부 어휘나 형태소에 융합적인 형태로 남아있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⁸⁾

3. 음운변이

3.1. 공통적인 음운과정

공통적인 음운과정에는 ‘평폐쇄음화,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유기음화,⁹⁾ 구개음화’ 등 자음 간의 음운과정이 대부분인데, 각 지역어에 따라 자료의 기저형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표면형의 도출과정이 공식적으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들 음운과정들 중에 평폐쇄음화와 경음화의 과정을 예로 들어서 그 공통적 성격을 살피기로 한다.

먼저 평폐쇄음화 과정을 보면, 휴지(#)나 자음 앞의 음절말 위치에서는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는 제약이 국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7개 자음은 유성음 ‘ㄴ, ㄹ, ㅁ, ㅇ’ 4개 자음과 평폐쇄음 ‘ㄱ, ㄷ, ㅂ’ 3개 자음이다. 유성음을 제외한 평폐쇄음화는 네 개 지역어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8) 영동과 인접한 충남 금산의 일부 지역어(부리면)에서도 ‘어머이(어머니), 할머이(할머니), 아주머이(아주머니)에서 ‘ㄴ’ 탈락이 목격되나 영동 충청방언권과 같은 운율은 찾아볼 수 없다.

9) 어말 평폐쇄음에 조사 ‘-한테’, ‘-하고’(표준형)가 연결될 때를 제외한 유기음화.(보기 (11)참조)

(7) 가. 양순음

1.2.3.4. 집#(짚), 집신(짚신) 답#(뒸-), 답따(뒸다)

나. 치조음·경구개음

1.2.3.4.

인#(잇-) 인따(잇다) 인(잇-)# 인따(잇다) 흔(흔-)# 흔따(흔다)

찬#(찾-) 찬따(찾다) 쫘#(쫘-) 쫘따(쫘다)

다. 연구개음

1.2. 뵙#(뵙(부억)), 뵙또(뵙도(부억도)) 3. 돌#(돌(石)), 돌또(돌도(돌도))

4. 부억#(부억), 부억뚜(부억도)

1.2.3.4. 닻#(닻), 닻따(닻다)

라. 성문음

1.2.3.4. 뺨#(뺨-) 뺨는(→뺨는(뺨는))

(7)은 지역어에 따라 기저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평폐쇄음화로 도출되는 과정은 휴지나 자음 앞에서 /교/→/비/, /스, 쓰, 트, 즈, 츠/ → /치/, /크, 끼/ → /기/, /히/ → /디/(후행 자음이 마찰음이나 비음)으로 동일함을 보여준다.

다음 경음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 보기 (8)은 활용의 예들로서 평폐쇄음이나 비음 뒤에서 경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¹⁰⁾

(8) 가. 잡짜(잡자)	걸끼(걸기)	먹따가(먹다가)
밥따가(밥다가)	안짜(앉자→안ㄷ+자)	
나. 검따(검다)	폼찌(폼지)	안따가(안다가)
쌈짜(쌈자)	1.2.3. 굽꼬/4. 굽꾸(굽고)	

꼭용의 경우는 활용과 다른데, 평폐쇄음 뒤에서는 항상 경음화가 일어나나 비음이나 유음 뒤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10) 그러나, 유음 뒤에서는 네 개 지역 모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살꼬/*살꾸(살고) *길꼬/*길꾸(길고)

- (9) 가. 1.2.3.밥또/4.밥뚜(밥도) 1.2.3.속또/4.속뚜(속도) 1.2.3.혹또/4.혹뚜(혹도)
 나. 1.2.3.산도*산또/4.산두*산뚜(산도) 1.2.3.뱀도*뱀또/4.뱀두*뱀뚜(뱀도)
 1.2.3.방도*방또/4.방두*방뚜(방도) 1.2.3.쌀도*쌀또/4.쌀두*쌀뚜(쌀도)

그러나 파생어나 합성어의 경우는, 평폐쇄음 뒤에서는 아래 (10.가)처럼 경음화가 항상 일어나지만 비음이나 유음 뒤에서는 (10.나)처럼 어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동일하다.

- (10) 가. 집썸(집신) 섯깡(셋강) 옥뜯(옥돌)
 진뺨따(짓뺨다) 헛꼬생(헛고생)
- 나. 밤또둑(밤도둑) 논빼미(논배미) 방빠닥(방바닥)
 눈썸(눈짓) 쌀뜯(쌀득) 진뺨꼬/4.진뺨꾸(짓뺨고)
 cf. *금뺨지(금반지) *은쭈저(은수저) *쌍똥이(쌍둥이)
 *삽쌀개(삽살개) *술짚(술질) *넙뽀다

그 밖의 음운과정인 ‘비음화(비음 앞 평폐쇄음), 유음화(ㄹ 앞 또는 뒤 ㄴ), 구개음화(형태소 경계 상의 ‘이’ 모음 앞 ㄷ, ㅌ)’의 경우도 동일한 환경에서 별 차이 없는 도출과정을 가지고 있다.

3.2 상위한 음운과정

상위한 음운과정이라 함은 동일한 음운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표면형의 도출과정에서 네 개 지역어가 둘 또는 세 부류로 갈라져 차이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첫 번째는 유기음화로서, 국어 일반적으로 볼 때 어말 평폐쇄음에 조사 ‘-하고’, ‘-한테’(표준형)가 접속될 경우 유기음화가 일어나는데, 1.4.지역어와 달리 2.3.지역어는 이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어간말 ‘-ㅎ’과 후행 어미의 평폐쇄음이 연결되는 활용의 경우 네 개 지역어 모두 동일하게 유기음화를

보이고 있으나,¹¹⁾ 다음 (11)의 경우처럼 1.4.지역어는 선행 평폐쇄음과 유기음화가 일어나나 2.3.지역어는 유기음화되지 않고 체언말 평폐쇄음이 그대로 연음된다.¹²⁾

(11) 가. -하고/-하구¹³⁾

- | | | |
|-------------------|------------|-------|
| 1.바파고/4.바파구(-하구). | 2.3.바바고LHL | (밥하고) |
| 1.오타고/4.오타구 | 2.3.오타고LHL | (옷하고) |
| 1.주카고/4.주카구 | 2.3.주카고LHL | (죽하고) |

나. -한테

- | | | |
|------------------|-------------|--------|
| 1.노판테/4.노판티(-한티) | 2.3.노반테LHL | (놉한테) |
| 1.자서칸테/4.자서칸티 | 2.3.자서간테LHL | (자식한테) |

(11)의 2.3.지역어에서 ‘-한테, -하고’와의 연결에서 비유기음화를 보이는 음절의 성조는 고조(H)로 나타나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두 번째는 어휘 내부나 어말, 어미 등에서 비음이 탈락되는 과정으로서, ‘이’ 모음 앞에서 비음 ‘ㄴ, ㅇ/ŋ’이 탈락되는 이 현상은 1.2.3.지역어에 보인다. 즉 2.3.지역어는 어휘 내부·어말·어미 모두에서 비음탈락을 보이고, 4.지역어는 모두 탈락되지 않으며, 1.지역어는 일부 어휘에서만 탈락을 보이고 있는

11) 알-(痛)+-고/구→알코/알쿠, 하얏-(白)+-고/구→하야코/하야쿠 등.

12) 그 동안 학계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평폐쇄음]_{N+S}[ㅎ’에서 ‘ㅎ’ 탈락이 선행한 결과 평폐쇄음이 연음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꼭용 시 이렇게 비유기음화가 나타나는 방언에서도 ‘평폐쇄음+ㅎ’이나 ‘ㅎ+평폐쇄음’은 필수적 규칙에 의해 유기음화되는 데, 이 경우에만 ‘ㅎ’ 탈락의 선행으로 유기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필자의 생각으로 이처럼 유기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이 ‘-한테, -하고’가 다른 방언의 조사들과 음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비유기음화 지역 ‘-한테, -하고’의 ‘-ㅎ’은 어휘적 변이음으로서 [+aspirated] 자질을 갖고 있지 않은, [+voiced]의 [h]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유기음화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13) 2.3.지역어에서 동사어간 ‘하’ 앞에 평폐쇄음이 올 때는 유기음화가 일어난다.

바패여(밥해) 머라개여(뭐라고 해?)

데, 그 예들을 1.4.지역어와 2.3.지역어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1.4.지역어

- | | | | |
|----------|------------|----------|------------|
| 1.어머이LHH | 4.어무니(어머니) | 1.할머이LHH | 4.할무니(할머니) |
| 1.지역LH | 4.저녁(저녁) | 1.아이LH | 4.아니(아니) |
| 1.마이LH | 4.마니(많이) | 1.주머이LHH | 4.주머니(주머니) |
| 1.가마이LHH | 4.가마니(가만히) | 1.그양LH | 4.그냥(그냥) |
- cf. 1.4.엥가니~엥가니(어지간히). 1.4.올챙이(올챙이) 1.4.구랭이(구렁이)
 1.4.도니(돈+-이) 1.4.강이(강+-이) 1.4.방이(방+-이)
 1.4.자니께(자+-니까) 1.4.사니께(사+-니까) 1.4.가니께(가+-니까)

(13) 2.3.지역어¹⁴⁾

가. 어휘 내부

- | | | | |
|--------------|------------------|--------------|--------------|
| 2.어머이 | 3.어무이(어머니) | 2.3.아바이(아버지) | 2.3.지역(저녁) |
| 2.3.아이라(아니다) | 2.3.마이(많이) | 2.건거이 | 3.건거이(주머니) |
| 2.3.가마이(가만히) | 2.3.기양(그냥) | 2.늘그이 | 3.늘거이(늙은이) |
| 2.절므이 | 3.절머이(젊은이) | 2.3.올채이(올챙이) | 2.3.몽디이(몽둥이) |
| 2.3.꼬채이(꼬챙이) | 2.3.고디(고딩이(다슬기)) | | |

나. 어말

- | | | |
|-----------------|------------------|--------------------|
| 2.3.사이(산+-이) | 2.3.무이(문+-이) | 2.3.봉수이가(봉순+-이가) |
| 2.3.그마이(가만+-이다) | 2.3.z가이~강이(강+-이) | 2.3.저세이~저생이(저승+-이) |
| 2.3.챙이~자이(場+-이) | | |

다. 어미

- | | | |
|------------------|------------------|---------------------|
| 2.3.늘그이께(늘+-으니까) | 2.3.해쓰이께(했+-으니까) | 2.3.반들하이(반듯+-하니) |
| 2.3.보이(보+-니) | 2.3.하디이(하+-더+-니) | 2.3.헨디만(헨+-더+-니+-만) |

보기 (12)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1.지역어의 ‘ㄴ’이 탈락되는 어휘의 음절에 H(高調) 운율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기 (13)의 2.3.지역어는 어휘 내부나 어말, 어미에서 비음 탈락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

14) 보기 (13)에서 3.지역어의 ‘ㄴ’은 /ㄴ/이다.

는데, 2.3.지역어도 탈락되는 음절의 성조가 1.지역어와 마찬가지로 모두 고조(H)라는 점이다.¹⁵⁾ 이런 사실은 1.지역어의 ‘ㄴ’ 탈락이 경상방언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 영향의 흔적이 영동 충청방언권의 운율로 남겨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는 곧 충청방언에 경상방언의 특성이 융합된 결과라 할 것이다.

다음 세 번째는 움라우트로서, 1.4.지역어의 움라우트과정은 ‘으→이, 어→에, 아→애, 우→위, 오→외’로 나타나며, 2.지역어는 ‘으, 우, 오→이, 어→에, 아→애’로 나타나고, 3.지역어는 ‘ㅜ, 우, 오→이’, ‘아→애’로 나타난다.

(14) 가. 으→이

- | | |
|-----------------|-------------------|
| 1.2.4. 딛기가(듣기가) | 1.2.4. 물디리기(물들이기) |
| 1.2.4. 지리미(기름이) | 1.2.4. 무리비(무릎이) |

나. 어→에

- | | |
|----------------------------|------------------------------|
| 1.4. 메기다 2. 미기다(<메기다)(떡이다) | 1.2.4. 땀빈다 3. 뎀빈다(<땀비다)(뎀빈다) |
| 1.2.4. 구메기(구멍이) | 1.2.4. 베비(뻬이) |
| 1.2.4. 게비(겹이) | |

가나. ㅜ→이

- | | | |
|-------------|---------------|-------------|
| 3. 딛기가(듣기가) | 3. 물디리기(물들이기) | 3. 지리미(기름이) |
| 3. 무리비(무릎이) | 3. 미기다(떡이다) | 3. 뎀비다(뎀비다) |
| 3. 구미기(구멍이) | 3. 비비(뻬이) | 3. 기비(겹이) |

다. 아→애

- | | | |
|-------------------|-----------------|-------------------|
| 1.2.3.4. 맴미(맘이) | 1.2.3.4. 배비(밥이) | 1.2.3.4. 뎅기다(다니다) |
| 1.2.3.4. 맥기다(말기다) | 1.2.4. 생키다(삼키다) | |

15) 2.3.지역어에서 ‘ㄴ’ 탈락의 예외도 있는데, ‘-니라’가 접속된 ‘가-니라, 사-니라, 오-니라’고, ‘자-니라’고 등이 그것이다.
성조(특히 고조)가 비음 탈락에 관여돼 있다는 것은 이병근(1969나) 이후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라. 우→위

- | | | |
|------------|-----------------|--------------|
| 1.4.쉬미(숨이) | 1.4.이늬미(이눔(눔)이) | 1.4.퀴기다(죽이다) |
| 1.4.귀경(구경) | 1.4.형키다(숨기다) | |

라. 우→이(우>위>이)

- | | | |
|--------------|-----------------|------------|
| 2.3.한시미(한숨이) | 2.3.그니미(그눔(눔)이) | 2.3.기경(구경) |
| 2.3.지기다(죽이다) | 2.3.싱키다(숨기다) | |

마. 오→외

- | | | |
|---------------|---------------|--------------|
| 1.4.쇠기(속이) | 1.4.뵤기~메기(목이) | 1.4.그늬미(그눔이) |
| 1.4.베기~비기(보기) | 1.4.쇠기기(속이가) | |

마. 오→이(오>외>이)

- | | | |
|------------------|------------|--------------|
| 2.3.손티비(손톱이) | 2.3.킹이(콩이) | 2.3.빅이라(복이라) |
| 2.3.고팅이(고통(교통)이) | 2.3.미기(목이) | |

2.지역어는 3.지역어와 마찬가지로 /위/와 /외/ 모음이 없어 ‘우→위’, ‘오→외’ 과정을 가질 수 없으나, 1.4.지역어처럼 /예/ : /애/, /의/ : /어/ 모음 간의 대립이 가능하므로 ‘어→예’, ‘아→애’, ‘으→이’ 과정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는 곧 2.지역어의 음라우트과정에는 충청방언의 성격과 경상방언의 성격이 병존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네 번째는 y 반모음화의 과정으로서, 표준어의 경우 어간말 ‘-이’ 모음이 과거시제 ‘-었-’과 연결될 때 그리고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어’와 연결될 때, 어간말 ‘-이’ 모음이 반모음화되어 ‘-였-’이나 ‘-여’로 나타나는 게 일 반적이다. 그러나 네 개 지역어는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달리 나타난다.

(15). 가. 과거시제 ‘-었-’

- | | | | |
|---------|--------------------|---------|--------------------|
| 1.4.뵤:어 | 2.3.뵤:어HL (디-(테-)) | 1.4.뵤:어 | 2.3.뵤:어HL (미-(메-)) |
| 1.4.졌:어 | 2.3.졌:어HL (지-) | 1.4.쌌:어 | 2.3.쌌:어HL (시-) |
| 1.4.뵤:어 | 2.3.뵤:어HL (뵤-) | 1.4.졌:어 | 2.3.졌:어HL (찌-) |

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어’

1.4.더: 2.3.다:HL (다-(데-))	1.4.며: 2.3.며:HL (미-(메-))
1.4.저: 2.3.지:HL (지-)	1.4.셔: 2.3.시:HL (시-)
1.4.뻘: 2.3.뻘:HL (뻘-)	1.4.쨌: 2.3.쨌:HL (쨌-)

과거시제(-었-)와의 연결에 있어서 1.4.지역어는 ‘이’가 반모음화되어 ‘였’으로, 2.3.지역어는 어미의 ‘어’가 탈락되어 ‘쓰’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연결어미나 종결어미와의 연결에 있어서 1.4.지역어는 ‘여’로 나타나나, 2.3.지역어는 ‘어’가 탈락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어간말 ‘이’ 모음이 고조의 장모음으로 나타난다.

다섯 번째는 w 반모음화의 과정으로서, 표준어에서 어간 말 ‘-우’ 또는 ‘-오’ 모음에 어미 ‘-어/아’ 모음이 연결될 때 w 반모음화가 일어난다. 이 경우 2.3.지역어는 y 반모음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 반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1.4.지역어의 경우는 어미 ‘-어야’와 결합될 때만 w 반모음화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어미 ‘-어’와의 연결에서는 w 반모음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보기(16))

(16) 어간 말 ‘-우’ 모음

가. -어야

1.4.꾸야~꿔야	2.3.꾸:야HL (꾸-)	1.4.두야~뒤야	2.3.두:야HL(두-)
1.4.주야~줘야	2.3.주:야HL (주-)		

나. -어(서)

1.4.꿔:	2.3.꾸:H (꾸-)	1.4.뒤:	2.3.두:H (두-)	1.4.줘:	2.3.주:H (주-)
--------	--------------	--------	--------------	--------	--------------

그러나 어간이 2음절 이상으로서 어간 말에 ‘우’ 모음이 오고 이것이 어미 ‘-어/야’와 결합될 경우, 1.지역어는 2.3.4.지역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 (17.가)는 ‘우’ 모음 앞에 모음이 오는 예이고, (17.나)는 ‘우’ 모음 앞에 자음이 오는 예이다.

(17) 가. XV우

- 1.배와 2.3.배아 4.배워 (배우-) 1.재와 2.3.재아 4.재워 (재우-)
 1.태와 2.3.태아 4.태워 (태우-) 1.깨와 2.3.깨(아) 4.깨워 (깨우-)
 cf. 1.치워 *치와 2.3.치아 4.치워 (치우-) 1.비워 *비와 2.3.비아 4.비워 (비우-)
 1.지워 *지와 2.3.지아 4.지워 (지우-) 1.피워 *피와 2.3.피아 4.피워 (피우-)

나. XC우

- 1.바짜~바까 2.3.바까 4.바꿔 (바꾸-) 1.가되~가다 2.3.가다 4.가뒤 (가두-)
 1.가짜~가까 2.3.가까 4.가꿔 (가꾸-) 1.마취~마차 2.3.마차 4.마취 (마추-)
 1.노봐~노나 2.3.노나 4.나눠 (나뉘-)

(17)에서 보면 2.3.지역어에는 w음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것은 ‘우’가 ‘w’로 반모음화되었다가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1.지역어는 4.지역어와 같은 w음화의 과정을 보이나, 연결된 어미의 모음은 2.3.지역어와 같은 양성모음이다. 그리고 ‘우’ 모음 앞 자음의 유무에 따라 1.지역어는 (17.나)처럼 반모음을 수의적으로 탈락시킨다. 보기 (17) 1.지역어의 ‘배와, 재와, 태와, 바짜, 가되, 가짜, 마취, 노봐’ 등은 융합적인 요소들이다.

4. 충청방언 남동부 하한선 설정

이제까지 네 개 지역어의 자모체계와 운율, 음운과정들을 살펴면서 그 공통점과 상위점은 무엇인지, 음운체계의 상위성이 음운과정의 어떤 차이로 드러나는지, 그리고 영동 지역어 내에서 충청방언과 경상방언의 성격이 병존하고 융합돼 있는데 그 성격은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해서 네 개 지역어 간의 친소관계를 간단히 대비해보면 다음과 같다.

※ 도표 안의 음영 부분은 지역어 간의 항목별 친소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18) 음운 지역어	① 자음 체계	② 모음 체계	③ 이중 모음	④ 운율	⑤ 평폐쇄 음화	⑥ 경음 화	⑦ 유기 음화
1.	19자음	10모음	y계 7개 w계 5개	음조 (부분고저)	도출과정 동일	도출과 정 동일	도출과정 동일
2.	"	8모음	"	성조	"	"	"
3.	"	6모음	y계 5개 w계 4개	성조	"	"	"
4.	"	10모음	y계 7개 w계 5개	음조	"	"	"

음운 지역어	⑧ 비음 화	⑨ 유음 화	⑩ 구개 음화	⑪ 유기음화 (-한테, -하고)	⑫ 비음 탈락	⑬ 움라우트	⑭ 반모음화
1.	도출과 정 동일	도출과 정 동일	도출과 정 동일	유기음화	없음(공시적), 일부 어휘(통시적)	이 에 애 위 외	y반모음화 w반모음화 (일부w탈락)
2.	"	"	"	비유기음화	어휘내부, 어말, 어미	이 에 애	y 탈락 w 탈락
3.	"	"	"	비유기음화	"	이 애	y 탈락 w 탈락
4.	"	"	"	유기음화	없음	이 에 애 위 외	y반모음화 w반모음화

(18)에서 7가지(① ⑤ ⑥ ⑦ ⑧ ⑨ ⑩)는 네 개 지역어가 동일했으나 그 밖의 나머지는 둘 또는 세 유형으로 상이함을 보였다. 모음체계(②)의 경우 세 가지로 차이 난 결과 모음 간의 변이인 움라우트(⑬) 과정도 역시 세 가지로 달리 나타났으며, 유기음화(⑪)와 비음탈락(⑫), 반모음화(⑭)는 각각 두 부류씩 달리 나타났는데 이것은 운율(④)에 성조의 존재 여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 항목 별 대비를 통해 네 개 지역어간의 친소관계를 따진다면, 음운체계나 음운과정에서 대부분 유사하게 나타난 1.4.지역어를 충청방언 하나로 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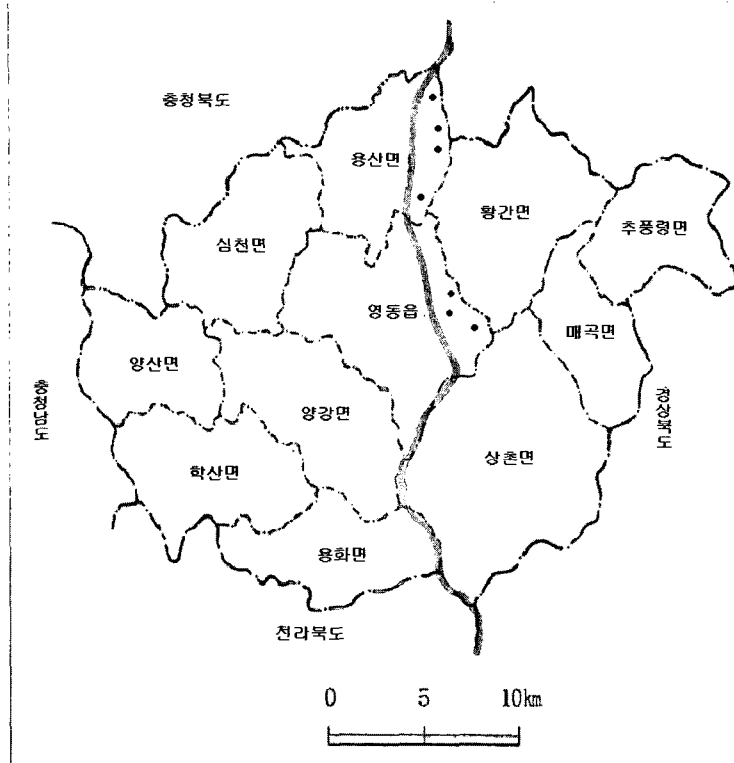
을 수 있을 것이다. 2.3.지역어의 경우도 모음체계와 그에 따른 이중모음, 음라우트에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역시 하나로 묶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3.지역어간의 차이가 일부 어휘 등에 국한된 차이가 아니라 체계 상의 차이이므로 이 둘은 다른 분류가 필요할 것이다.

1.지역어(영동 충청방언권)는 운율(④)과 비음탈락(⑫), 반모음화(⑭)에서 경상방언적인 요소가 섞여 있는데, 이 경상방언적인 요소는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어휘나 형태소에 국한되어 나타나므로 1.지역어에는 충청-경상방언 간의 융합적 성격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2.지역어(영동 경상방언권)는 충청방언적인 요소가 일부 어휘나 형태소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음체계(②), 이중모음(③), 음라우트(⑬)에서 체계적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충청-경상방언의 병존적 성격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병존적 성격은 방언 간 전이지역어들의 중요 특징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며, 우선은 2.지역어를 경상방언과 충청방언의 전이지역어로 간주함이 마땅하리라 본다.¹⁶⁾

2.지역어가 모음체계나 음운과정 상으로 보면 전이지역어로서의 성격을 띠고 는 있지만, ②④⑪⑫⑬⑭에서 보이는 특성으로 인하여 충청방언에는 포함될 수 없다고 봤을 때, 충청방언의 남동부 하한선은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16) 전이지역어에 병존적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융합적인 성격(8모음체계, 어두 자음 뒤에서만 이중모음이 단모음화, ‘어→에’ 음라우트에 나타난 성조 등)도 있겠으나, 체계적인 경향을 보이는 병존적 성격은 전이지역어로서의 주요 특징이라 생각된다. 다른 전이지역어의 예로써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화북지역의 음운을 대비 연구한 김덕호(1985:77)에서도 보면, 전이지역인 화북지역어에서는 체언어간말 자음교체, 비모음화와 자음탈락, ‘o→u, a→i’ 고모음화, w 삭제 단모음화, 이중모음화 등에서 보은-상주 간 병존적 특성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2.지역어에 대해 전이지역어로서의 성격을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2.3.지역어간의 관계, 다른 전이지역어들과의 특징 대비 등 좀더 깊이 있는 연구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19) 충청방언 남동부 하한선



위 지도에서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1. 지역어(영동 충청방언권)는 ‘용산면-영동읍-양강면-용화면’으로 경계가 그어지고, 2. 지역어(영동 경상방언권 또는 전이지역)는 ‘황간면-상촌면’으로 경계가 그어짐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충청방언권의 일부 지역이 경상방언권에 포함되고 있는데, 충청방언권 중 용산면의 ‘청화리(청화리, 상청화리), 덕진리, 산저리’와 영동의 ‘가리(하가리를 제외한 상가리, 중가리(무근점))’ 마을은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방언권의 면 단위에 소속된 마을들이지만 (18)의 2. 지역어와 같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므로 충청방언 등어선의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⁷⁾

17) 지도에서 하한선 바로 오른쪽에 점으로 표시된 지역들의 마을 이름을 맨 위로부터

나, 2.지역어의 경우는 어두로 한정된다.

5.4 1.4.지역어와 2.3.지역어를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성조의 존재 여부다. 음조방언인 1.4.지역어는 길이에 따른 의미 변별이 어두로 한정되며, 성조방언인 2.3.지역어는 높이에 따른 의미 변별이 위치에 상관없이 이뤄진다. 비성조방언인 1.지역어에는 의미 변별의 기능은 없으나 몇몇 어휘나 형태소 상에 특이한 높이가 나타난다.

5.5 네 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음운과정에는 평폐쇄음화, 경음화, 비음화, 유음화, 유기음화(‘-한테, -하고’ 앞의 환경은 제외), 구개음화 등이 있는데, 이 음운과정들은 동일한 환경에서 거의 유사한 도출과정을 갖는다.

5.6 네 개 지역어가 둘 또는 세 부류로써 상이함을 보이는 음운과정에는 ‘-한테, -하고’(표준형) 앞의 유기음화, ‘이’ 모음 앞의 비음 탈락, 움라우트, 반모음화 등이 있다. 조사 ‘-한테, -하고’ 앞 평폐쇄음의 유기음화는 1.4.지역어에서 일어나나 2.3.지역어에는 일어나지 않고 평폐쇄음이 그대로 연음된다. ‘이’ 모음 앞 비음 탈락이 어휘내부, 어말, 어미 등에서 자유롭게 일어나는 지역은 2.3.이며, 1.지역어는 일부 어휘와 형태소에 국한되고 4.지역어에는 없다. 1.4.지역어의 움라우트는 국어상에 나타나는 최대 움라우트의 과정인 ‘으 → 이, 어 → 에, 아 → 애, 우 → 위, 오 → 외’가 있으며, 2.지역어에는 ‘으, 우, 오 → 이’, ‘어 → 에’, ‘아 → 애’가 있고, 3.지역어에는 ‘요, 우, 오 → 이’, ‘아 → 애’가 있다. 반모음화 과정에 있어서 1.4.지역어는 ‘-y]N+S[어’나 ‘-w]N+S[어’에서 모두 반모음화가 일어나나, 2.3.지역어에서는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어’가 연결될 때 y반모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고 반모음화되지 않는다. 성조의 존재 여부가 유기음화, 비음탈락, 반모음화 등에서 지역어간의 상위성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7 본고에서 고찰한 음운체계나 음운과정을 종합해봤을 때, 1.지역어는 경상방언적인 요소가 일부 융합되긴 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부 어휘나 형태소 상에 국한됨을 볼 때 4.지역어와 같은 충청방언에 해당됨이 확실하고, 2.지역어의 경우는 경상방언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충청방언적인 요소가 일부에 체계적으로 병존해 있음을 놓고 볼 때 전이지역어로 간주될 만하다.

5.8 영동 지역어 내에 있는 충청방언의 남동부 하한선은 영동 용산면의 ‘미전리-매남이-매금리-구촌리-백자전리’와 영동읍의 ‘예전리-심원리-하가리-임계리-안점-당곡리-삼봉’, 양강면의 ‘내함-내천마동’, 용화면의 ‘불당골-상총-안정리’로 그어진다. 이들 지역 동쪽에 위치한 마을들은 2.지역어 같은 성격을 두루 갖는 마을들이다.

인용문헌

- 김덕호, 『경북방언의 지리언어학』, 도서출판 월인, 2001.
- 김정태, 「음운현상을 통한 기본형 설정(1)」, 『한국언어문학』 제46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
- 김정태, 「충남 천안방언의 움라우트에 대하여」, 『우리말글』 25집, 우리말글학회, 2002.
- 도수희, 「충남방언의 모음변화에 대하여」, 『이승녕선생고회기념논총』, 탐출판사, 1977.
- 도수희, 『한국어음운사연구』, 탐출판사, 1977.
- 박명순, 「영동지역어의 음운연구」, 『서원문화논총』 8집, 서원대호서문화연구소, 1994.
- 박명순, 「영동지역어의 형태음소적 고찰」, 『인문과학연구』 10호, 서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01.
- 백두현, 「금릉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성희제, 「영동(永同) 충청방언권의 음운적 특성 연구」, 『어문연구』 49, 어문연구학회, 2005.
- 이병근(가), 「황간지역어의 음운」, 『서울대논문집』, 교양과정부, 1969.
- 이병근(나), 「방언경계에 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2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69.
- 이상규(김영배 편저), 『남북한의 방언 연구』, 경운출판사, 1992.
- 이익섭, 「전라북도 동북부 지역의 언어분화」, 『어학연구』 제4권 1호, 서울대어학연구소, 1970.
- 이혁화, 「무주·영동·김천 방언의 음운론적 대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전광현, 「영동·무주 접촉 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13,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3.
- 정영철, 「영동지역어의 음운변동에 관한 연구」, 서원대 석사학위논문, 1997.
- 정원수, 『영동군지』(언어편), 영동군지편찬위원회, 1991.

- 조성귀, 「옥천방언연구」-특히음운현상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3.
최갑순, 「영동방언의 음운론적 고찰」,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77.
최명옥, 「경북 월성방언의 음운변화에 대하여」, 『신라가야문화』 11, 영남대출판부, 1980.
최명옥,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출판부, 1982.
최학근,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1994.
한영목, 『충남 방언의 연구와 자료』, 이회문화사, 1999.
한영목, 『충남 금산 지역어의 연구』, 한국문화사, 2000.
경상북도, 『경상북도방언자료집』, 199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 III』 충북편, 198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 IV』 충남편, 1987.

[Abstract]

Research on the Bottom Boundary Line on the Southeast Area of the Chungcheongdo Dialect in Yeongdong

Hee-jae Seong
(Hanbat National University)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Yeongdong(永同) the southernmost part of the Chungcheongbukdo province, has attracted attention among the academic circle as one of the dialectal contact regions since it adjoins the Gyeongsang and Jeolla dialects. Unlike the local language in Mooju (Jellado dialect) adjacent to the Southwest part, the local language in Yeongdong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Kimcheon (Gyeongsang dialect). More specifically, it is noteworthy that the boundary line of the Gyeongsang dialect is found in this reg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division. In other words, the local language in Yeongdong

is divided into the Chungcheong dialect and the Gyeongsang dialect, and furthermore each dialect region still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other region's dialect. For example, the phonological structure of Yeongdong Chungcheongdo dialect has very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fudged dialect, which is seemingly influenced by the Gyeongsang dialect.

The present study is to define the bottom boundary line of the southeast area of the Chungcheong dialect by identifying the boundary line between the Gyeongsang dialect and the Chungcheong dialect, and to clarify its specific sound system generated by the contact of these two dialects. For this, the author collected and analyzed data of the local language around Yeongdong and adjacent areas. It was found that Cheongwha-ri, Deokjin-ri, and Sanjeo-ri at Yeongsan-myeon, and Mugeunjeom, Sangga-ri, and Jungga-ri at Yeongdong-eup, among the regions that belongs to Chungcheong dialect within the local language of Yeongdong, s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Gyeongsang dialect. Accordingly, the western areas of these villages become the southeast boundary line of the Chungcheong dialect. Also, the unique pho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Yeongdong Chungcheong dialect is affected by the Gyeongsang dialect, among which "rhythms, y deletion, nasal phoneme deletion, and w deletion" appeared. It is thought to be the unique fudged dialectal phenomenon that appeared only in this region.

The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be of some help in finding out various aspects of dialectal contacts as well as clarifying the phonological features of the local language in Yeongdong, and thereby contributing to exact divisioning of the Chungcheong dialect.

keywords: Southeast Area of Chungcheongdo Dialect, Transition Area, Fudged Dialect, Mixed Dialect

접 수 일 : 2006년 10월 30일

심사기간 : 2006년 11월 1일-11월 20일

재 심 사 : 2006년 11월 27일

게재결정 : 2006년 12월 4일 (편집위원회)